

전문가 의견 ①

어항개발, 큰 틀에서 추진하여야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양식연구실장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국민의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이라는 비전 아래에 수립되었다. 연안의 공간인 어촌과 어항 정책 타겟을 어촌주민에서 벗어나 국민으로 확장하여 어촌·어항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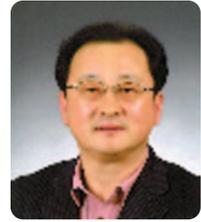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기본적인 경제원칙이 어항개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항은 다른 수산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배치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어항이 명실상부하게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속담처럼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중 어항정책의 변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의 어항정책 수립의 의의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어촌주민,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민간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어항정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우물 안 개구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볼 수 있도록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토대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부처보다 통합 행정의 계획의 수립과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는 물론이고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녹지조성과 등의 업무와 연계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사람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어항개발계획과 함께 어항의 다양한 시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선정과 이들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양한 어항시설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 시설에 대한 창조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어항시설의 잠재적 가치는 창출되기 때문이다. 넷째,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어항을 개방공간으로 전환하여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산물의 양륙과 유통의 물류 중심의 공간으로부터 사람 교류의 중심공간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갖춘 색다른 길의 정거장으로서 어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이 시장 간다고 하니 똥장군 지고 따라 나선다’라는 속담처럼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고 싶은 공간이다. 준비된 시장인 어항을 국민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육성할 때 시장으로서 어항은 6차 산업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의견 ②

강원도 어항별 특화사업 추진하기로



전영하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재출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터·일터·쉼터로써의 어촌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라 “국민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을 비전으로 “살고 싶고 부유한 어촌 키우기”와 “가치있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하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부의 새로운 추진방향인 2018년까지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 및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조성을 위하여,

어촌의 다양한 인문·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와 고용창출 도모 등 어촌·어항의 다기능 정비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를 위한 어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원도내 각 시·군과 협의하여 테마형별로 개발 및 추진중에 있으며, 복합기능 편익시설 정비가 필요한 어항으로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어항주변 환경이 우수한 삼척시 장호항을, 현화로라는 해안도로와 기암괴석 해안절벽이 명품인 강릉시 금진항을, 관광형 주차장이 완비된 어항인 고성군 대진항을 복합형 특화어항으로 추천하고,

자원조성형으로는 해양환경이 우수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인공시설이 필요한 양양군 수산항, 삼척시 궁촌항, 고성군 아야진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트계류시설을 위한 피셔리나형은 어항내 다수의 스킨스쿠버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수중조망을 할수 있는 속초시 대포항, 강릉시 사천진항을 추천하였으며

낚시관광형은 7번국도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의 관광명소가 있는 삼척시 임원항, 고성군 공현진항, 양양군 남애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어항은 동해안 관광지 중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하는 장소이기에 올림픽을 대비한 노후시설 정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조성을 위하여 자체적인 지방어항 시설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침언한다.

전문가 의견 ③

정주·마을공동어항 계획
빠져 있어 아쉬어나 상 필
무안군청 해양수산과장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부활한 해양 수산부의 본격적인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갈 “국민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 조성“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2대 목표, 4대 추진전략, 13대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 바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이다. 지난, 제1차 어촌어항 기본계획을 통하여 그 동안 낙후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촌의 어항시설의 대대적인 개보수와 기반 시설의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나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어촌어항 발전의 기본 모토가 될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도시와 어촌이 상생하고, 테마가 있는 문화가 공존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한 클린 어항육성 사업 등 선진국형 기본발전계획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대부분이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정주·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 나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융·복합 어촌 6차 산업화 사업과 같은 어촌 특화마을육성 사업 등은 정주어항이 대부분인 지자체로서는 안성맞춤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전기본계획의 성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더불어, 어업인들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동체 리더의 인재 육성 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다운 어촌 어항 개발에 있어서 관련법이 정하는 어항기본시설 지원에서 벗어나서 관광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포구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을 더하고, 고유의 문화를 접목하여, 스토리가 있는 테마속에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포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형물과 상징물 등으로 이를 이노베이션 함으로서 도시인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만들어 내서,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귀어라는 귀촌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 또한, 틈새 개발전략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어항 개발의 지표가 될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이라는 크나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해양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할 만큼,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업인들이 서로 소통하여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갈 때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 의견 ④

아름답고 머물고 싶은 어촌 · 어항을 만들자



윤길정
거제 다대어촌계 계장

내가 살고 있는 다대리는 다대다포항이라는 국가어항을 정부가 튼튼히 만들어 준 덕분에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어항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인가? 당연히 어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민의 인구수는 해를 거듭 할수록 자꾸만 줄어들고 남아있는 어업인들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어촌에 이러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때에 해양수산부가 '제2차 어촌 · 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 내용에서도 '살고 싶은 부유한 어촌 만들기'라고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참 마음에 든다. 또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는 등 가치있고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자는 취지에도 찬성한다.

어업인들도 언제까지 어업생산 활동에만 얽매어 있을 수만은 없다. 잡는어업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촌관광을 통한 신소득 창출에도 관심을 보아야 할 시점이다.

미래의 어항은 어떻게 만들어져야할 것인가?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머물고 싶어 지는 곳,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귀촌하고 싶어지는 어항이 미래의 어항이다.

우리 다대마을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어항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 다대마을에서는 현재 어업인들이 주인인 (주)다대마을관리공동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숙박, 식사, 어촌체험, 유람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외 복합적인 사업인 가능한 것은 다대다포라는 어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어업인들은 이 어항을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하여 어민들의 소득과 고용 확대를 이루어 잘사는 어촌, 아름다운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영원할 것이고 그 바다가 있는 한 어업인도 영원할 것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제2차 어촌 어항개발계획에서 제시하는 어촌의 6차 산업화 육성 체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잘사는 어촌을 만드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